

PAOT 방식을 적용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협회에서 실시한 「참여형(PAOT) 방식을 적용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방법」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실〉

대한산업보건협회 / 이 명숙

1. 서론

최근에는 진폐, 소음성난청, 중독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병 외에 뇌심혈관질환,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업무상질병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병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수동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이 미흡함으로, 작업장 내에서 노·사가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어야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적 방법을 적용한 작업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활성화하여 재

해 및 직업병 예방 의식을 높이고, 노사의 자주적인 참여기전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사업장의 작업조건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작업 조건 개선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과 훈련 지원이 중요하다.

2. PAOT 프로그램 개요

배경

ILO(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을 21세기에 주요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LO는 Decent Work란 '권리가 보호되고 충분한 수입을 가지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은 Decent Work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

Decent Work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보건의 실현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의 재정상태, 생산기반 및 기업경쟁력 등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보건을 위한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위험과 작업조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ILO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방식을 적용한 안전보건 리스크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건설업, 가내공업, 농업분야에도 적용되어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OT 프로그램 개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개발된 PAOT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WISE, WIPE, WIND, WISH, WISCON, SOLVE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참여적 기법의 훈련개

념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Action checklist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노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한다는 점이다.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은 사업주의 책임을 바탕으로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사업장내에서 Action checklist와 개선사례를 도구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해당부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평가하고 작업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꾀하는 자주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이러한 사업장의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근로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PAOT 프로그램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천방법

1) 참여형 체크리스트(action checklist) 활용

참여형 체크리스트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리스크평가를 단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재료의 보관과 취급, 작업대 설계, 생산기계의 안전, 물리적 환경, 복지시설 및 작업조직의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다면적 측면에서 작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모

범사례(good practices)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저비용의 실용적인 개선사례

저비용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현장 개선사례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저비용의 개선 기술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응용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3) 작업장 점검 후 그룹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사가 공유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개선과제를 선택하는 활동으로 안전보건 개선방법 등 재해예방 기법 발표에서 발표자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개선사례는 그룹토의에서 참가자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추후관리 방문지도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술한 참여형 개선활동 훈련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참여형 개선활동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해당 사업장의 방문지도를 통하여 개선계획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저비용의 모범사례를 수집한다.

5) 저비용의 실용적인 개선사례 성과발표회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한 안전장치 및 설비 중 저비용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사례를 수집하여 소개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개선사례 발표는 저비용의 산업보건 개선 기술을 중소규모 사업장에 천파하여 동종업종에서 즉시 응용이 가능함으로, 생산성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6) 지역단위 PAOT강사의 자질 향상

PAOT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전문가, 관리감독자, 명예산업보건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PAOT강사로 육성하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내 PAOT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3. 우리 나라 중소규모사업장에 적용 사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청주지청과 협력하여 2007년도부터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PAOT 방식을 적용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사업목적

본 사업은 노동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실행가능한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규모사업장의 작업 현장에 적용해보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사의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은 ① PAOT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② PAOT 강사훈련과정, ③ 추후관리, ④ 성과발표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PAOT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PAOT 프로그램 홍보는 사업주 간담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업주 간담회는 전년도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관련성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청주지청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내용은 노동부의 정책방향, 노사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사례, 모범사례 사진컨테스트 등으로 구성하였다.

2) PAOT 강사훈련과정

참여형 개선활동기법 훈련과정은 3일과

정의 'PAOT 강사훈련과정'과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를 위한 2일과정의 '참여형 개선활동훈련 워크숍'의 2종류로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실시하였다.

훈련과정의 주요내용은 참여형 개선활동의 원리, 저비용의 좋은 사례, 퍼실리레이터의 역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참여형 개선활동 체크리스트 실습, 재료의 보관과 취급, 수공구의 취급과 안전, 작업장 설계의 개선, 작업환경, 작업관리 및 복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훈련방법은 사업장 현장실습, 저비용 좋은 사례, 소그룹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3) 추후관리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추후관리 방문지도 활동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좋은사례를 수집하고, 노사의 자주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2007년도에는 15개 사업장, 2008년도에는 30개 사업장이 참여하였고, 2009년도에는 39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4) 참여형 개선활동 성과발표회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성과발표회에는 사업장의 관리자와 근로자들의 개선활동에 대한 사례발표와 그동안 개선성과에 대해 '저비용 좋은 사례 사진 콘테스트'를 매년 11

월에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사업성과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15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이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겨 87.0%의 사업장이 개선성과를 보였고, 중·단기 개선계획 50개 항목 중 26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 계획 대비 52.8%가 추진되었다.

2008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30개 사업장이 모두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겼고, 중·단기 안전보건 개선계획 122개 항목 중 65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계획 대비 53.3%가 추진되었다.

2009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39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이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겨 89.7%의 사업장이 개선성과를 보였고, 중·단기 안전보건 개선계획 305개 항목 중 211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계획 대비 69.1%가 추진되었다.

개선된 분야는 재료의 보관과 취급, 수공구의 취급과 안전, 작업장 설계의 개선, 작업환경, 작업관리 및 복지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개선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선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선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몰랐던 좋은 점을 알게 되었다.’, ‘저비용으로도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등의 응답이었다.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의 개선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전의 작업여건’, ‘개선내용’, ‘개선 후 이점’, ‘소요비용’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개선내용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선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1) 향후 본 사업에서 개발한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을 타지역에 확대 적용하여 우리 나라 중소규모 사업장과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AOT 강사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정부에서 PAOT 방식을 적용한 사업

장 안전보건 리스크 개선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PAO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5. 맷음말

PAOT방식을 적용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활동 프로그램은 비록 처음부터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실천하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는 것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커다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 지향적 접근법은 긍정적이며 저비용이고 아주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동기가 조성되면 사업장에서 노사 참여와 협력이 지속되고 나아가서 안전보건관리를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습관이 형성되어 결국은 자주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정착될 것이다. ☺